

굿모닝인천

FEBRUARY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4

02

COVER STORY 메이커스, 인천
유진로봇의 서빙하는 물류 로봇 고카트와 박기연 연구원
표지 사진 류창현



굿모닝인천

2020. 02 | FEBRUARY

INCHEON MONTHLY MAGAZINE



www.incheon.go.kr

인천의 모든 것을 검색하세요



클릭 인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가 새 단장했습니다.

90개 공공기관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검색 포털,
정책은 기본, 다양한 빅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의 장,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한 다채로운 플랫폼까지.

지금, 인천을 클릭하세요!

<굿모닝인천> 웹진도 모바일 속에 쏙!
www.incheon.go.kr/goodmorning

장용



문학산에 소풍 갔던, 용일초등학교 1학년 때 모습. 개그맨 장용에게 인천은 가깝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 자신과도 같은 의미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한 기억

개그맨 장용은 독정이 고개(미추홀구 용현동)에서 태어나 주안 신기촌 일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다. 문학산을 넘어 지금의 남동공단 자리에 있던 염전에서 친구들과 수영하고, 망둥이랑 조개 잡아 매운탕도 끓여 먹으며 놀았다. 소래포구에서 할아버지 배를 타고 첫 바다낚시를 떠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을 사귀고 결혼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는 인천 구석구석 또 얼마나 많은지. 비록 한적한 골목을 몇 번이고 오가는 것이 데이트의 전부인 가난한 연인이었지만 순댓국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던 궁핍한 기억까지도,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자세한 이야기는 장용 인터뷰 1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FEBRUARY 2020
Vol. 314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0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신봉훈(소통협력관)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편집장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CONTENTS

- 04 인천 미소
달라지는 인천이 기대됩니다 外
- 06 인천의 맛
⑥ 별버리목
- 12 인천, 사람
② 장용 개그맨
- 16 '인천시 홍보대사' 가이드
강화도 송어·빙어 축제
- 20 메이커스, 인천
② 유진로봇
- 24 인천 VS 세계 도시
① 인천글로벌캠퍼스 VS 두바이 날리지 빌리지
- 28 드라마 시티, 인천
스토브리그
- 32 아이 키우기
인천 돌봄
- 36 내가 사랑하는 인천
소설가 이원규
- 38 시민 시장
손민환 학예연구사
- 40 문화 캘린더
AKMU '항해' TOUR IN 인천 外
- 42 문화 포커스
겨울방학 공연과 특강
- 44 이미지 뉴스
자원 순환 선진화 정책
- 46 시정 뉴스
'도로 위 지하철' S-BRT 달린다 外
- 50 의회 뉴스
2020년 의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外
- 52 드로잉 인천
청량산 둘레길
- 54 인포 박스
감염 예방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外
- 58 인천의 아침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59 인천사진관
류인복 독자님 가족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incheon.gov
블로그 blog.incheon.kr
유튜브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 twitter.com/incheon_go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incheoncity
카카오채널 '인천시 미디어'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ncheon_gov
웨이보 www.weibo.com/incheon

달라지는 인천이 기대됩니다

'2020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2020년 달라지는 인천 시정이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020년은 '살기 좋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조금씩 현실로 바꾸어 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강수지 연수구 함박외로

도시의 가치를 보존하는 문화 지킴이

인천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도시에 내재된 의미 있는 문화 유산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문화재 등 사라져 가고 잊혀 가는 것을 발굴해 소개하고, 이를 인천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굿모닝인천>에는 시리즈로 게재하고, 시 차원에서 는 도보 탐방로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양태인 남동구 장승남로

진짜 인천을 알아가는 흥미로운 여정

20여 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다 귀국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인천의 이모저모를 알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굿모닝 인천>을 알게 됐습니다. 인천 구석구석 자리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진솔하게 풀어낸 스토리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매월, 마치 한 편의 인문학 강좌를 듣는 듯 알차고 행복한 기분입니다.

박현경 중구 은하수로

'시시콜콜한 인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인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굿모닝인천>이 1980년대 이전 오래된 인천의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매월 주어지는 주제와 관련한 오래된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인천의 극장'입니다. 극장과 그 주변에 얽힌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 보내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

채택된 내용은 <굿모닝인천>을 통해 소개하고,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 리 동 네



부평, 인천이 즐거운 이유

글 최시온(부개여자고등학교 2학년)

부평. 두말할 필요 없는 인천의 '핫 플레이스'다. 종종 타 지역 사람을 만날 때면 '인천 하면 부평'이라는 말을 등식처럼 내뱉곤 한다. 부평에서도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은 단연 부평 지하상가다. 세계도 인정했다. 2014년 11월, 단일 면적 세계 최다 점포를 가진 상가로 월드레코드아카데미에 등재됐다. 부평역 지하로부터 미로처럼 얽힌 공간에 1,400개가 넘는 점포들이 운영 중이다. 하루 유동 인구만 10만여 명.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길, 빼곡한 점포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둘러봐야 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다.

'쇼핑의 천국'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없는 것 빼곤 다 있다. 먹거리도 다채롭다. 이태원에 경리단길이 있다면 부평엔 '평리단길'이 있다. 수제 버거, 스페인 요리, 일본 가정식 등 특색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에 분위기 있는 카페도 즐비해 'SNS 세상'에서도 활약이 눈부시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문화의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선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캔들, 석고 방향제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방과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가족, 친구, 연인 할 것 없이 붐빈다. 이곳은 매주 주말 복합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와 인테리어 소품, 각종 공예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부평의 인기는 최고다. 부평지하상가에서 즐기는 부담 없는 쇼핑에 문화의 거리에서 맛보는 다채로운 음식, 때때로 만나는 버스킹 공연은 흥대가 부럽지 않다. 도시의 자랑이자 시민의 휴식처, 부평이 있어 인천이 즐겁다.

겨울 빛 담긴 투명함

별버리묵



인천의 맛

별버리묵(아래)과 그 원재료인 박대 껍질(위 오른쪽), 그리고 박대. 스타일링 진희원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펴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여섯 번째는 겨울을 닮은, 맑고 투명한 맛 ‘별버리묵’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무의도 큰무리 마을 바닷가



‘그 많던 박대는 다 어디로’

“거의 우리 바다 것이 아니야.” 무의도 큰무리 마을 바닷가, 일광욕하는 생선들을 가리키며 마을 주민이 말한다. 대부분 먼바다에서 나 연안부두를 거쳐 이 섬으로 왔다고 했다. 길어야 석 달,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가 있다고 해서 섬까지 왔다. 바로 영종도, 무의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 박대의 껍질로 만든 별버리묵. 박대 맛이 가장 좋을 때는 겨울에서 봄. 더구나 날이 따듯해지면 생선 껍질이 흐물거리 묵을 썬기 어렵고, 애써 만들어도 금방 녹아버린다고 했다. 추울 때 별벌 떨어서 먹는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도 ‘별버리묵’.

계절의 별미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원재료가 섬 앞바다에서 잘 나지 않는다니. 박대뿐 아니었다. 그물을 던지면 척척 잡히던 전어도 송어도, 그 흔했던 망둥이도, 지천으로 널려 있던 굴도 바지락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옛날에는 그리 어마어마하게 그물에 걸려들더니 이제 구경하기가 힘들어.” 옛 큰무리 선착장 인근에서 식당을 하며 생선을 말려 파는 주민 신정숙(74) 어르신이 덩덤하게 말한다. 한겨울 섬을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은 그저 평화롭다.

무의도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뱃길로 한 시간은 가야 하는 가깝고도 먼 섬이었다. 그러다 갯벌이 메워져 영종도와 용유도가 한 몸이 되고, 그 한가운데로 거대한 활주로가 났다. 도시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가 놓였다. 지난해 4월에는 무의대교가 개통했다. 그렇게 갯벌이 사라지고 조류가 바뀌면서, 사시사철 바다의 산물이 모여들어 풍요롭던 서해는 서서히 말라갔다. 세계의 하늘을 품은 대신, 우리 바다를 내주어야 했다.



무의도 토박이 김영균 씨가 섬에 가스가 들지 않던 시절의 '나는 자연인이다' 방식으로, 벌버리묵을 만들고 있다.



느릴수록 깊은 '섬의 맛'

· 박대는 갯벌이 많고 수심이 얇은 서해안 지역의 인천, 서천, 군산 등지에 서식한다. 가자미목 참서대와 생선으로, 몸이 납작하며 머리가 작고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어머니에게 눈 흘기면 박대 눈 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못생겼다. 그렇다고 박대를 박대薄待할 수만은 없다. 섬사람들은 조기나 민어처럼 돈이 되는 생선은 육지로 내다 팔고, 흔하디 흔한 박대로 밥상을 채워 살아갈 힘으로 비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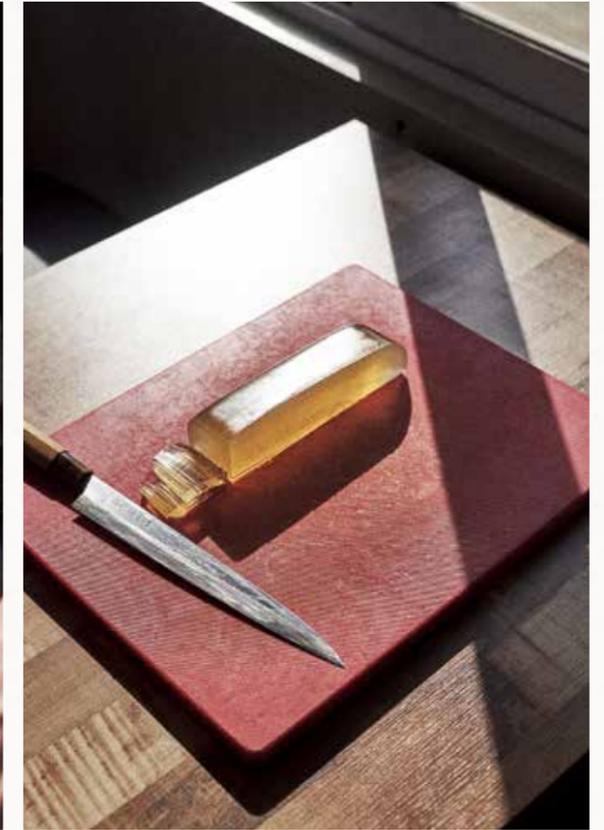
벌버리묵은 박대의 껍질로 만드는 생선묵으로, 황해도에서 전해온 서해 바닷가의 향토 음식이다. 인천 영종도, 무의도 일대와 충남 서천 지역에서 주로 먹는다. "예전엔 집집마다 해 먹던 음식이었어요. 생선 비닐과 껍질도 다 쓸모있는 것이라며 박박 긁어모아 묵으로 만들어 먹은 거지요. 집마다 빛깔이 다른데, 정성을 들일수록 맑고 투명하답니다."

무의도 토박이 김영균(48) 씨는 하나개해수욕장 앞에서 '도랫마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이름은 이 동네의 옛 지명에서 따왔다. 무뚝뚝하고 거세 보이지만 속정 깊은 섬 사나이가 벌버리묵을 쉰주겠다고 소매를 걷었다. 그것도 섬에 가스가 들지 않던 시절의 '나는 자연인이다' 방식으로. 담담하면서도 깊은 맛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인 끝에서야 나온다. "벌버리묵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거의 하루가 걸려. 하루 동안 같이 살아보자고요."

그의 말대로 벌버리묵은 원재료부터 오랜 시간 정성껏 공을 들여야 하는 '슬로푸드'다. 먼저 박대의 껍질을 까서別に 바짝 말린다. 말린 박대 껍질은 물로 깨끗이 씻어 찬물에 8시간 정도 담근다. 이후 껍질을 손으로 비벼 깨끗이 손질한다. 여러 번 문질러 검은 비늘껍질과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처음에 시커멓게 나오던 물이 맑아지고 나서야 손질을 거둘 수 있다. 잘 손질한 박대 껍질은 가마솥에 넣고 푹 끓여 액즙으로 진하게 우려낸다. 여기에 생강, 대파, 먹다 남은 소주 반병을 넣고 끓이면 생선 비린내가 덜하다. 그렇게 한두 시간 중불로 잘 끓여낸 후 면포에 박대 껍질을 걸러내어 육수를 받아낸다. 정성껏 고아낸 국물을 묵 틀에 부어 식혀서 굳히면, 드디어 탄력 있고 즐길만한 묵이 완성된다.



벌버리묵은 원재료부터 오랜 시간 정성껏 매만져야 하는 '슬로푸드'다. 정성을 들일수록 그 빛이 맑고 투명하다.



비릿한 바다 냄새, 그 삶의 향기

· 껍질을 벗긴 박대는, 햇빛에 꾸덕꾸덕하게 말려 구이로 해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이안중(68), 정만숙(65) 부부는 섬마을 식당에서 20년째 박대를 굽고 있다. 남편은 무의도 토박이고, 아내는 1975년에 전라남도 별교에서 이 섬으로 시집왔다. "저 남쪽 끝, 왜 꼬막 나는 데 있잖아. 거기서 처음 올 때만 해도, 이 동네가 개안이라고 갯벌 천지라 바지락을 쓰레질하듯 담았어. 옛날엔 잡기 싫어서 안 잡을 정도였는데..." 질게 주름 팬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남쪽에서 서쪽 갯벌로, 갯벌투성이로 살아야 하는 섬 아낙의 삶을 숨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왔다. 평생 물이 마를 날 없던 손은 갈라지고 터지고를 반복하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갯일하고 농사일하고, 섬에서 난 생선이나 쌀을 이고 배 타고 육지로 가서 팔아, 그 돈으로 애들 밥해 먹고 공부 가르치고... 여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 하지만 그 어떤 원망도 후회도 없다. 스쿠버다이버가 되어 제주 바다를 누비는 아들, 잘 자라준 1남 2녀를 떠올리면 살아온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평생을 땀 흘려 산 만큼 이제 먹고살 만하지만, 노부부는 용돈 벌이라도 되는 식당 일을 놓을 수 없다. "책에 난 거 보고 많이들 가게에 와서, 회고 생선구이고 잡수고들 가면 좋겠네. 허허." 어느덧 세상이 어둠에 잠기고 섬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다리 건너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섬. 그곳엔 엄마 몸에 밴 비릿한 바다 냄새처럼, 쉬이 지워지지 않는 삶의 향기가 질게 배어 있다.

바다
섬의
한가운데
오롯이
핀



· 무의도舞衣島, 그 모습이 마치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춤추는 무희 같은 섬. 전어, 송어, 민어, 우럭, 조기... 무의도 바다는 늘 만선으로 출렁였고 땅은 풍요로웠다. 산이 좋아 영지, 느타리 등 자연산 버섯과 약초 등이 나고, 갯벌에서는 굴이며 낙지, 바지락이 널려 있었다. 그로 인해 육지와는 다른 섬의 식문화가 오롯이 피어났다.



바다와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다정식당
중구 대무의로347번길 1(무의도 포내교회 옆)
☎ 010-4334-4160

무의도 사람들의 삶이 맛대어 있던 곳은 바다뿐이 아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때론 호미질을 하며 부지런히 삶을 일궜다. 무의도 토박이 이안종 어르신은 섬의 땅과 바다가 풍요롭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한다. “1970, 80년대까지도 벼, 콩, 고구마, 감자 할 것 없이 농사를 많이들 지었어. 지금 섬 곳곳에 펜션이고 뭐고 건물들 올라선 데가 다 논이었지.” 개밭에 땅을 잃은 후로, 아내는 무의도 콩 대신 딸이 사는 강원도 영월에서 나는 콩으로 두부를 빚는다. 콩은 일고여덟 시간 불려 솥에 넣고 끓여 콩물을 진하게 내고, 해수로 간해 바다의 풍미를 더한다. “옛날엔 집집마다 두부를 해 먹었어. 두부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섬에서 오래 살고 먹어본 사람이 만들어야지. 누가 할 사람이 있나?” 식탁 위에 한 상 차려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손두부와 딱딱하게 구워낸 박대가 먹음직스럽다. 김치에 싯 두부 그리고 생선살을 한 점 크게 떼어내 입안에 넣는다. 담담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한가득 퍼져 나간다.

박
대
구
이
와
손
두
부



갈
밥
과
갈
국

계절마다 다른 섬의 맛

도랫마을
중구 하나개로 144-3
☎ 032-752-6377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재야의 숨은 고수를 만난 느낌이라고나 할까. 겨울에는 굴, 봄에는 주꾸미, 가을에는 낙지... 무의도 토박이 김영균 씨는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흰히 꿰고 있어, 철마다 어떤 요리든 척척 해낸다. 그의 요리 철학은 간단하고도 어렵다. 간단 잘 맞추면 된다는 것. “같은 재료를 한 방식으로 요리해도, 식재료의 상태에 따라 그날 그다음 날 맛이 달라요. 계속 섬세하게 맞춰가야 하지요.” 한 가지 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온전히 살려야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동네에서 낙지국이라고 부르는 연포탕의 경우, 낙지에 딱 무만 넣고 끓여도 충분히 시원하고 맛있다. 굴밥도 무를 채 썰어 넣고 그 위에 쌀, 콩나물, 신김치를 차례로 올린 후 밥이 뜸들 때쯤 굴을 얹으면 끝. 고수의 요리법은 이렇듯 단순 명쾌한데, 내공이 쌓인 그맛은 깊고 풍부하다.

데
침
쌈
밥
과
벌
버
리
묵

햇살 담은 쌈밥 한입, 행복 가득



쌈밥을 입안에 담은 순간,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오른다. 고단한 일상에 지친 주인공은 고향으로 돌아가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자연 안에서 삶에 심포를 찍는다. 무의도에서 데침쌈밥집을 운영하는 정경자(63) 씨의 고향은 전남 곡성이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도심에서 멀찍이 떨어진 시골 마을이다. 그는 우연히 무의도에 왔다가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17년 전 섬에 정착했다. 10여 년 전부터는 ‘무의도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식당을 차렸다. 그가 고안해 낸 메뉴는 데침쌈밥. 어릴 때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 향아리에 담긴 된장을 퍼다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에 무의도에서 난 굴로 만든 쌈장이면 어떤 찬이 더 필요하랴. 호박잎과 양배추 등 채소를 직접 기르고,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갖가지 잎을 따와 밥상에 올린다. “쌈에 섬의 햇살까지 더해 입안 가득 넣고, 자연을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의 아무진 음식 솜씨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섬 안팎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그가 만든 벌버리묵은 TV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되기도 했다.

무의도데침쌈밥
중구 대무의로 309-15
☎ 032-746-5010

미우나
고우나,
나의 인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괜히 정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얘기만 하는데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말의 내용을 떠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감지하는 마음속 안테나 때문일 것이다. 진심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게 마련이기에. 개그맨 장용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나고 자란 인천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자신을 사랑하듯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이라면 못할 말도 해주야 할 때가 있다. 별 애정 없는 사람이라면 고춧가루 낀 이를 드러내고 웃든 말든, 자만에 빠져 뻥히 보이는 문제를 외면하든 말든, 자신감을 잃고 남의 말에 휘둘리든 말든 굳이 서로 불편해질 지적을 할 까닭이 없다.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도 나의 자존감을 북돋워주는 사람만큼이나 소중한 이유다.

개그맨 장용은 독정이 고개(미추홀구 용현동)에서 태어나 주안 신기촌 일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에게 인천은 가깝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 자신과도 같은 의미다. 신인 시절부터 선배들에게 ‘짤물’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어딜 가나 스스로를 인천 사람으로 소개했던 그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그가 이야기하는 인천은 자랑스럽고 좋은 것보다 아쉽고 부족한 것이 더 많은 도시다. 사실 눈치 보지 않고 돌직구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 그의 타고난 성품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인천을 유독 냉정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듯 인천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인천 사람으로서 ‘어쨌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인천을 향한 장용의 애정 어린 직설 화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천시 홍보대사가 됐으니
인천을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아니다 싶을 땐 목소리도 낼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인천이 더 좋아질 테니까요.



인천시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은 선생님께서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 개항로에 사는 주민인, 한마디로 인천 사람이에요. 스무 살에 개그맨이 되어 35년 동안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지만,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인천에 일이 있다고 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왔고, 인천 출신 후배 개그맨들을 모아서 만든 ‘갯벌’이라는 봉사 모임도 7~8년 열심히 활동했고요. 지난해 경인방송 iFM ‘시사토크’를 진행했던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인천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쌓은 경험을 인천을 위해 발휘해 보려고요.

그러고 보니 요즘 TV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인천 활동을 늘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라디오에 집중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 게 마흔부터니까 한 16년 됐는데, 그때 이미 나의 길을 라디오에서 찾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어요. 애초에 데뷔하고 1년 쯤 방송을 해보니, 중년은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알아야 제대로 된 코미디를 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생활은 해야 하니 젊을 때는 경험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마흔 됐을 때 진지하게 생각해 봤지요. 우선, 냉정하게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제가 TV에

서 성공할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방송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라디오를 해보자 한 건데,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라디오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잘 맞았나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지요. 라디오는 TV와 달리 생방송이 많고 녹음을 하더라도 편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내 의도가 왜곡될 걱정이 없고, 또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진짜 실력이 어떤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긴장감도 저는 좋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게스트 혹은 청취자와 온전히 소통하면 굉장히 짜릿한 거지요. 라디오의 매력에 빠지면 어쩌다 TV 출연 요청이 와도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셨잖아요. 경인방송 iFM에서 진행했던 ‘시사토크’ 진행 당시 다방면으로 아는 게 많아서 놀랐더라고요. 선생님 질문에 출연자들이 긴장했다는 소문도 들렸고요. 일부러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그분들을 긴장시켜야겠다, 그런 의도가 있던 건 아니고 인천 시민으로서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였지요. 그 프로그램에 대부분 인천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니 책임자로서 맡은 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직원들이 써준 답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사전 조사를 해 깊이

interview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정성 있는 소통이에요. 얼마만큼의 예산을 집행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등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과연 ‘인천 시민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가 정말 알고 싶은 거지요.

라디오 진행자로서 책임감이 있었겠지만, 인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도 있었던 거네요. 인천에 대한 깊은 애정은 오랫동안 인천에서 살아온 시간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평생을 인천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요. 10년 연애하고 28년째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인천 사람이에요. 저에게 인천은 정서적 터전이지요. 그러니 인천 사람으로 살면서 지역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에 빠져 대학에서도 연극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인천에 연극 한 편 볼 변변한 극장이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오가면서 생각했지요. 내가 출세하면 인천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인천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 제가 대단히 출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을 위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인천에 뭔가를 해야겠다’ 결심하셨다니, 인천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어질 인천에 내 천씨, 우리말로 하면 어진 내, 어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 지명부터가 참 좋잖아요? 제 바람은 인천이 그 이름에 걸맞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어진 내에 사는 저부터 어진 사람이 되고 싶고요. 개그를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며 웃기는 건 진짜 유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개그맨, 어진 인천 사람으로 활동하시겠지요? 유튜브 방송을 준비 중이에요. 요즘 풍자 코미디가 사라지다시피 했잖아요. 진영을 떠나서 소신껏,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풍자하는 코미디를 해보려고요. 소신은 곧 진정성이니깐, 진짜 소통을 하려면 소신을 지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도 재미있고요. 인천시 홍보대사가 됐으니 인천을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아니다 싶을 땐 목소리도 낼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인천이 더 좋아질 테니까요.

방송인 장용의 이야기는 인천시 발행 단행본 <인천, 사람>에도 담겨 있습니다. 책을 받고 싶은 분은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홍보콘텐츠팀(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얼음 속 반짝이는 겨울을 낚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인천, 그 안에서도 진주처럼 숨은 명소가 더 있다는데. 구석구석 보물처럼 반짝이는 그곳을 특별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인천시 홍보대사와 함께 떠나는, 당신이 몰랐던 인천. 그 두 번째는 인천e음카드 홍보 영상에 출연한 교사 류은진(49) 씨가 소개하는 겨울빙하 여행지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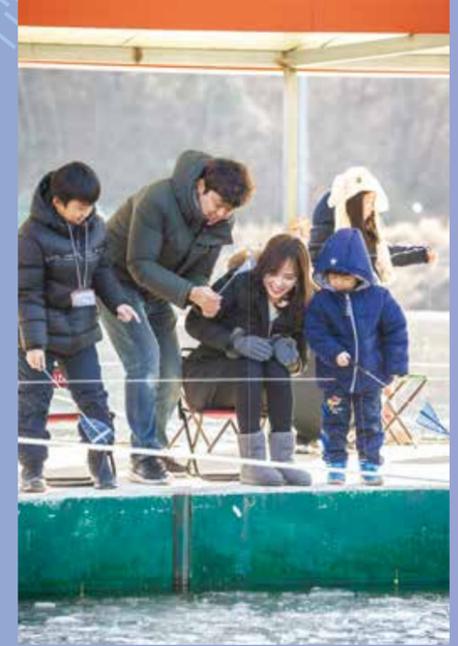


신선저수지 송어·빙어 축제

기간 3월 2일까지(오전 7시~오후 5시 30분)
장소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741번길 37-30
홈페이지 www.ssfestival.co.kr
문의 032-933-1366

인산저수지 송어·빙어 축제

기간 2월 23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787번길 8-1
홈페이지 www.insanry.com
문의 010-6664-4354, 010-7617-6606



초보자도 부담 없는 겨울 놀이터

올겨울이 예년에 비해 그리 춥지 않을 거란 예상이 딱 들어맞는 요즘 날씨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 이 계절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지 고민하던 찰나, 류은진 씨는 믿고 가는 ‘강화’를 답으로 내놓았다. “강화에서 매년 겨울 송어·빙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방학 기간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 한산한 도로를 달려 그곳으로 향한다. 강화 대교를 넘자 섬마을의 고즈넉한 겨울 풍경이 펼쳐진다. 나지막한 산을 휘감은 좁다란 길 끝자락,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신선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축제의 현장은 북적인다. 눈대중으로도 족히 100명은 될 듯. 실제로 평일 약 200~300명, 주말엔 1,000여 명의 방문객이 강화도 송어·빙어 축제를 찾는다. “얼음이 얼지 않아 걱정했는데, 오히려 포근한 날씨 덕에 부담 없이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동환 신선저수지 내수면 어업계 실장을 따라 낚시터에 들어선다. 송어는 릴낚시로 잡고 빙어는 견지대를 이용한다. 류은진 씨는 방학을 맞아 동행한 두 아들 지훈이와 지성이를 배려해 초보자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빙어를 선택했다. 한 사람당 입장료는 5,000원. 여기에 견지대만 구매하면 하루 종일 빙어를 낚을 수 있다.

GANGHWADO FESTIVAL



입장료는 5,000원,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다.

짜릿한 손맛, 고소한 입맛

빙어는 얼음을 깨고 잡아야 제맛. 하지만 맛보다는 안전이 먼저다. 알파벳 ‘T’ 모양으로 설치된 튼튼한 데크 위로 참새처럼 줄지어 앉아 빙어 낚시를 즐긴다. 오전 일찍부터 축제를 찾은 이들은 벌써 한 통 가득 빙어를 낚았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는 류은진 씨 가족. 견지대에 미끼로 사용할 구더기를 끼운다. 주의할 점은 줄이 엉키지 않도록 아래쪽부터 차례차례 끼워야 한다는 것. 낚시할 곳 주변에 빙어를 불러 모을 집어제를 적당량 뿌리고 줄을 내린다. 1분에 약 5~6회 정도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다음은 기다림.

“엄마, 빙어가 내 낚시줄 문 거 같아!” 정말 잡힐까. 시종일관 무표정하던 첫째 지훈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리는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온 빙어가 펄떡인다. 그렇게 가족이 1시간 동안 잡아 올린 빙어는 모두 15마리. 이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빙어를 맛볼 시간이다. 낚시터 한편에 마련된 자그마한 식당으로 향한다. 빙어 요리는 강화 고천마을 부녀회의 몫이다. 잡은 빙어를 건넌고 10여 분을 기다리니 푸짐한 빙어 튀김 한 접시가 식탁 위에 오른다. 넉넉한 인심도 함께 담겼다. 이곳에선 빙어 한 마리든 열 마리든 똑같은 양의 빙어튀김을 내준다. 바삭한 튀김 한입에 자연의 신선함과 빙어의 고소함이 가득 퍼진다.



‘인천시 홍보대사’ 교사 류은진 씨



잡은 빙어를 식당으로 가져가면 푸짐한 빙어 튀김 한 접시를 내준다.



사람과 사람을 이음, 지역과 경제를 이음

강화도 송어·빙어 축제는 강화 내가면 고천마을 주민들과 신선저수지 내수면 어업계가 주최하는 겨울 축제다. 올해로 8회째 열리고 있는 축제의 시작은 한결같다.

“날씨에 상관없이 매년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축제가 시작된다고 해요.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들도 패키지 투어 형태로 많이들 찾고 있다 들어요.”

신선저수지는 주변에 민가가 적어 이름처럼 물이 신선하다. 본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빙어를 잡던 곳이었지만, 깨끗한 환경에 개체수가 나날이 늘면서 이를 나누기 위해 축제를 기획했다. 어업계를 중심으로 마을 부녀회와 노인회가 힘을 보태 매년 착실히 축제를 꾸려간다. 그 덕에 방문객들은 색다른 계절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 얼어붙은 가게를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도 인천e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카드 홍보도 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류은진 씨가 느닷없이 인천e음카드 이야기를 꺼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던 그에게 뜻밖의 경험을 선물해 준 것이 바로 인천e음카드다.

“지인의 소개로 인천e음카드 홍보 영상 출연에 도전했어요. 운 좋게 ‘머느리 역’으로 캐스팅됐죠. 인천e음카드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아 뿌듯해요.”

홍보 영상 촬영은 시민 홍보대사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요즘엔 더 열심히 인천e음카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엄마이자 아내,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류은진 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꿈꾼다.

“인천의 미래는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에요.”



더 인간답고 행복한, 로봇 시대

오늘도 당연하게 쓰이는, 무심코 손에 닿는 물건들. 그 누군가가 일터에 틀어박혀 인생을 내어주며 만들어낸 것들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메이커스’를 만난다. 그 두 번째로 4차 산업 기술 혁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유진로봇’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유진로봇

유진로봇 생산본부의 김만선 과장



1

로봇이 서빙하는 일상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도쿄 시부야역에 있는 카페 ‘페퍼 팔러 (Pepper PARLOR)’. 친근한 모습의 로봇들이 테이블 사이를 이리 저리 움직이며 고객을 찾아간다. 로봇은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기분 좋아 보여요”, “고민이 있으신가요”라고 인사를 건네고, 메뉴를 주문받고 추천해 준다. 자리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을 즐기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 카페는 로봇과 직원이 함께 일하고 손님을 맞으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카페는 일본 최대 IT 회사이자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담당하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SoftBank Robotics)’가 운영하고 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일상은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로봇 전문 기업 ‘유진로봇’ 내 ‘ROBOT 카페’.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한 물류 로봇 고카트 (GoCart)가 커피를 나르고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마냥 신기한데, 직원들은 익숙한 듯 음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는다. 고카트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이나 사무실로 음료를 배달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 로봇을 생산 현장이나 카페, 병원,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볼 날이 머지않았다. “기술 혁신으로 로봇이 우리 삶과 생산 영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빠르게 실생활에 적용되고, 사람에게 조화롭고 안전하게 쓰이느냐가 관건이지요.” 유진로봇의 박기연(44) 개발팀장은 로봇이 곧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삶의 질을 높이라고 단언한다.

1 유진로봇 내 로봇 카페. 자율주행 물류 로봇 고카트가 음료를 배달하고 있다.

2 고카트(GoCart)



2

**송도국제도시에서 꿈꾸는,
4차 산업혁명**

아톰, 로보트 태권브이 같은 로봇이 만화나 공상과학(SF)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줄로 알았다.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는 지났다. 로봇은 우주를 탐사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또 가까이서 음식을 나르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돕고 돌보는 역할도 한다. 로봇은 이제 생활의 한 부분이 됐다.

‘유진로봇’은 1988년 설립한 우리나라 로봇 1세대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난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일류 상품’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유진로봇은 지난 2018년 4월,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떠오르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동지를 틀었다. 서울에 있던 본사를 이전하고 로봇 제조 및 연구 시설을 새로 지었다. 그 안에선 2019년 기준 139명, 그중 연구개발자 64명이 머리를 맞대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

신경철(63) 유진로봇 회장은 유진로봇의 최대 강점으로 연구개발(R&D) 능력을 꼽는다. 창립 이래 줄곧 회사 매출의 일정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그 결과 2019년 기준 국내외 약 189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을 보유할 만큼 연구개발 역량을 길렀다. 그 힘을 기반으로 유진로봇은 ‘로봇 솔루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완제품 로봇 생산에 주력했다면, 이제 우리 기업만의 로봇 핵심 기술과 부품을 사업화해 다양한 로봇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퀴가 달린 모든 장비에 유진로봇의 ANS(Autonomous Navigation Solution)를 적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로봇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1



2



3

- 1 어둠이 내려앉은 유진로봇 사옥. 유진로봇 사람들은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혀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린다.
- 2 로봇 연구소의 연구원들. 바퀴가 달린 모빌리티를 구현하며, 자율 주행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 3 유아 교육용 로봇 아이로비(iRobi).
- 4 유진로봇 생산사업부 현장. ‘유진’이라는 이름을 건 로봇과 부품은 모두 이곳을 거친다.



4

**꿈을 현실로 이룬,
땀의 힘**

2020년 오늘 기업의 화두는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한다. 로봇 기술은 생산, 서비스 영역을 넘나들며 우리 삶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 시야를 넓히면 그렇지만도 않다고, 신 회장은 말한다. “단순 반복되는 고된 노동을 로봇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서 로봇 설치, 시운전, 디자인, 서비스 개발 등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영역 또한 계속 생겨나고 있지요. 관련 분야의 관심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다스리는 건 결국 사람이다. 유진로봇의 생산사업부 현장. ‘유진’이라는 이름을 건 로봇과 부품은 모두 이곳을 거쳐야만 한다. 40여 명의 생산직 사원들이 공정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제품을 완성해 낸다. 모든 제품은 까다로운 검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본다. 공장을 관리하는 김만선(39) 과장은 무엇보다 품질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 분명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정, 특히 검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정상 제품 100개를 만들어도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 불량인 것이나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귀한 땀이 스민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희열감이란. 그들 손길이 닿은 제품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가는 컨테이너에 선적할 때는 ‘드디어 우리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하고 가슴이 부듯하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움직이는 만큼 더 편한 세상.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매달리고 기계를 매만지는 사람들이 일구는 값진 미래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이 움직이는 만큼 더 편한 세상.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혀 연구에 매달리고 기계를 매만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값진 미래다.



INCHEON GLOBAL CAMPUS



VS

KNOWLEDGE VILLAGE



교육이 미래다 사람이 세계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100년 후, 확실한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 무대는 넓어졌다. 넓어진 만큼 또 가까워졌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도 좋다. 우물 속에 세계가 있으니.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문을 연 인천글로벌캠퍼스, 이보다 한발 빨리 움직여 세계 속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두바이 날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는 현재이자 미래다.

글 임규택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학지원팀장 | 사진 셔터스톡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커리어센터(위)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캠퍼스(아래)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교육 기관의 탄생

2012년,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는 국내 최초 외국 대학 공동 캠퍼스를 탄생시켰다. 동북아시아의 관문, 송도국제도시에 등지를 튼 인천글로벌캠퍼스다. 해외 우수 명문 대학 10개, 학생 1만 명 유치라는 원대한 목표가 담겼다. 이유는 분명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발맞춘 교육 혁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 무엇보다 지식·경제·산업·문화 등 각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현재 5개의 해외 우수 대학 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와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The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다. 이들 대학들은 각자, 또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며 해마다 수준 높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위상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위치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설립 2012년

입주 대학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특징 본교와 동일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과 학위 취득, 학기 중 1년간 홈 캠퍼스 유학, 다양한 인턴십 제공 등

VS



두바이 날리지 빌리지

위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설립 2003년

입주 대학 미국 미시간대학교, 호주 울런공대학교,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 등 전 세계 11개국, 25개 대학

특징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해외 교수 급여 및 주택 비용 등 일체 제공, 시설 50년간 무상 사용, 재학생 장학금과 학비·기숙사비 등 생활비 및 학자금 용자 지원 등

교육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써 내려온 그간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첫째는 1,250억원이 넘는 유학 수지 개선 효과다. 국내 학생이 해외 본교로 유학 갈 경우, 졸업 시까지 매년 학비 4,000만원, 생활비 1,000만원 등 약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 약 2,800여 명을 통해 연간 1,400억원의 유학 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입주 기관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대학의 선진 교육을 받고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국제도시의 이점을 활용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턴십을 경험하고 학기 중 1년간 홈 캠퍼스에 다녀올 기회를 얻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등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지속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 실현되는 중동의 꿈

인천에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있다면 두바이에는 날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명문 대학을 유치해 종합 대학을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여기다. 두바이가 교육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뚜렷하다. ‘오일머니’를 통해 단숨에 강소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유한한 자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존재했다. 다시 빈곤을 겪지 않으려면 대안이 필요했고, 결론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닿았다.

교육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제2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호주 울런공대학교,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 등 세계 11개국에서 25개 대학이 등지를 틀었다. 2003년 개교 첫해 2,000여 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는 10여 년 만에 2만5,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경쟁력의 핵심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 과거에는 중동의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과 영국 등으로 빠져나갔지만, 날리지 빌리지를 통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내 학생은 물론이고 해외 우수 인재들까지 흡수됐다.

비슷한 사례는 카타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도 도하에 자리한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다. 카타르 정부가 전 세계 우수 대학 학부 7곳을 유치해 2003년 만든 ‘대학 특구’로,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미래 인재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제2막을 열어가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1단계 5개 대학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47명에 머물렀던 학생 수가 2019년 가을 학기 기준 2,8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 한국뉴욕주립대의 첫 졸업생 탄생 이후, 5개 대학 모두에서 수준 높은 인력이 사회로 나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UN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대학원 등으로 진출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그리는 청사진은 ‘동북아 최고 글로벌 교육 허브’다. 2025년까지 4차 산업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10개 대학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노력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눈부신 청사진을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탄한 구성과
명품 연기가 더해진**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야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 전까지의 준비 기간으로, 다음 시즌의 경기력 강화를 위해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 등 팀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를 뜻하는 야구 용어다.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극본 이신화, 연출 정동윤)는 프로야구 꼴찌팀 드림즈에 새로 부임한 백승수(남궁민 분) 단장이 프런트 동료들과 힘을 합쳐 새 시즌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드라마다. 그라운드 뒤에서 묵묵히 일하며 선수보다 더 치열하고 격동적인 일상을 보내는 프런트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스토브리그는 10회분이 전국 시청률 17%를 기록하는 등 인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브리그가 인기를 끄는 건 뛰어난 스토리와 주연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어우러진 덕분이다. 일단 야구선수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다. 실제로 많은 야구선수들이 스토브리그 열혈 시청자임을 자칭한다. 여기에 남궁민, 박은빈을 비롯한 주연 배우들은 물론이고 조연까지 연기 구멍이 없다는 점도 드라마를 단단하게 이끌고 있다.



STOVELEAGUE



**스토브리그 속
'인천'**

SBS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화제다. 만년 꼴찌 야구팀인 '드림즈'에 부임한 백승수(남궁민 분) 단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그린 스토브리그는 야구선수과 야구팬은 물론이고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단박에 사로잡았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의 대부분은 인천에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 주말, 스토브리그 촬영 현장을 찾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SBS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주요 촬영지는 드림즈의 홈구장으로 설정된 인천SK 행복드림구장. 드라마 제작을 위해 SK 와이번스에서 홈구장을 촬영지로 내주었다.



'스토브리그' 성지가 되어버린 인천 촬영장

'스토브리그'의 드림즈 홈구장은 SK 와이번스의 홈인 '인천SK 행복드림구장'이다. 선수들이나 프런트 직원들이 야구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과 백승수 단장의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구장 풍경은 '인천SK 행복드림구장'. 이외에도 강화도 SK퓨처스파크와 송도 LNG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 인천신현초등학교,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 곳곳에서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8일 방영된 드림즈의 전지 훈련 장소로 언급된 따뜻한 남쪽의 야구장은 실제로 송도 LNG 야구장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등장인물도 많고 야구 경기 장면을 촬영하려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텐데, 촬영장 분위기는 부드럽고 화기애애했다.

"정동운 감독님의 현장 주문이 '웃으면서 일하자'입니다. 야구장 시설도 좋고, 촬영 협조도 잘 이뤄져 만족합니다." 황현민 조연출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고맙다고 말한다. SK 와이번스의 오래된 팬으로서 드라마 초기 단계부터 현장 섭외 1순위로 SK 와이번스를 염두에 두었다는 윤철환 섭외부장은 극중 프런트 사무실도 SK 와이번스 사무실과 흡사하게 구성했다고 말한다.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님이 기본적인 프런트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SK 와이번스에서는 피칭 머신과 투구 추적 장비인 '랩소드'를 선뜻 빌려주고, 드라마 촬영상 갑작스럽게 바뀌는 요구 사항에도 적극 지원해 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브리그는 월미도 공원과 송도에 위치한 호텔, 인천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귀띔해 준다.



"배우, 스태프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빠질 거예요."
촬영 데크에 붙어있는 문구처럼 스토브리그 촬영장은 에너지 넘치고, 밝고 따뜻했다.



DRAMA CITY INCHONEN

화려한 그라운드 뒤편 뜨거운 겨울 이야기

- 1, 2 — 2회에 등장한 '바이킹스'의 체력단련실과 강두기 선수가 피칭 훈련을 받는 곳은 강화도에 있는 SK퓨처스파크이다.
- 3 — 백승수 단장과 권경민 상무가 드림즈의 우승과 해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곳은 인천SK 행복드림구장.
- 4 — 백승수 단장을 차량으로 뒤쫓던 건달들을 씨름선수 흥만이 제압하는 장면은 중구 운북동 도로변에서 촬영됐다.
- 5 — 6회에 나온 제물포고와 대성고의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과 11회에 등장하는 드림즈의 전지 훈련지는 송도 LNG 야구장이다.



명실상부 촬영 명소 '인천'

인천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해외 영상 촬영지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촬영된 영화·드라마 등 '인천'을 촬영해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작품은 모두 195편. 이는 전년 대비 촬영 편수 기준 약 41% 증가, 촬영 일수 기준 약 7% 증가한 수치로 인천을 찾는 촬영팀이 꾸준히 늘어난 것을 말해준다. 촬영된 영상물은 영화가 45편, 드라마 52편, 뮤직비디오 33편, 광고 28건 등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에서 촬영된 TV 드라마는 52편으로, TV 드라마가 연간 150편 정도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제작한 드라마 3분의 1은 인천을 다녀간 셈이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돌봄’으로
안심하세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인천시는 올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 따뜻하게 배려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믿을 수 있는 인천시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들여다보았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유아 돌봄 :
아이사랑꿈터



아이 키우는 기쁨, 다 함께 누리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이 모여 아이를 함께 돌본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영·유아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는 가정 육아로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한 공동 육아 품앗이 공간이자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이다. 시는 영유아와 함께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꿈터’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휴 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볼풀 놀이방, 장난감 놀이방 등 연령대에 맞는 교구와 최신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으며, 부모 자조 모임실, 수유실 등 육아에 관련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이사랑꿈터’는 현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30개의 ‘아이사랑꿈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는 신나고, 부모는 편하고!

“날씨가 춥거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바깥 외출이 꺼려지는데,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럴 땐 이곳이 최고죠. 이용료도 저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많으니까 만족해요. 아이가 이곳에서 또래 아이들과 노는 걸 보면서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 최유경(서창동)

아이사랑꿈터는 음식물 반입 금지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독해서 그런지 늘 청결한 느낌이에요. 또 2시간씩 예약제로 운영돼 붐비지 않고, 입장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 열을 체크해 마음이 놓여요. 일반 키즈카페에 가면 초등학생까지 함께 물려서 지치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곤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 서미숙(서창동)

Info.

- 이용 대상 영·유아와 보호자 동반 이용
- 이용 방법 온라인 예약 및 전화·현장 접수
- ※ 이용 인원이 한정돼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하루 3타임(타임당 2시간, 이용료 1,000원)
-
- 남동구 운연천로 11, 서창동 꿈에그린 아파트 내 ☎ 032-469-7977
- 서구 봉오재1로 36, 신현동 루원시티 센트럴타운 아파트 내 ☎ 032-583-5275
-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12, 도화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내 ☎ 032-872-1255

**초등 돌봄 :
다함께 돌봄센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학교 일과가 끝난 이후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의 ‘아이 돌봄’이다. 초등학생은 이르면 오후 1시, 늦어도 오후 4시에는 하교한다. 부모가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해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오후 7시는 돼야 한다.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돌봐야 할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를 믿고 맡길 장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인천시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올해 안으로 30여 개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중심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인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돌봄 교사와 관리자가 상주해 돌봄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돌보는 상시 돌봄과 긴급 사유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일시 돌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돌봄**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처럼 아이 돌봄이 시급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지도는 물론이고 독서, 미술, 영화감상, 문화-예술, 보드 게임,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식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순경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장

4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선발이 안 됐어요. 맞벌이다 보니 아이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스러웠는데, 지난해부터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좋고, 아이들도 저도 정말 만족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이런 돌봄센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임영빈(부평1동)



Info.

이용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부모 소득 수준과 무관

이용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 방학 중에도 운영

이용료 월 5~7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별로 서비스 이용 대상, 운영 시간, 이용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연수구 다함께 돌봄센터 ☎ 032-833-0001 / 남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 032-472-3904

계양구 다함께 돌봄센터 ☎ 032-541-4090 /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부평 꿈자람터) ☎ 032-508-0105

**청소년 돌봄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돌봄을 넘어 적성 개발까지 맡겨주세요

다양한 경험으로 진로까지 지도

가족이 모여 살던 시대에는 가족 모두가 양육과 교육에 참여했지만, 사회 변화로 아이들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건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향숙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PM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형들이 영어, 수학도 가르쳐주고, 제과제빵, 체육활동, 봉사활동, 캠프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막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참여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갈 수 있을 듯해요.

- 신승호(중2)



청소년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퐁듀 크라상’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이들이 만든 빵을 남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Info.

운영 대상 중학교 1~2학년(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교육비 전액 국비 지원(단, 교재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운영 시간 주 5~6일 운영(주중 : 방과 후~오후 8시 / 주말 : 오전 9시~오후 6시)

※ 청소년수련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인천시청소년수련관 ☎ 032-722-9161 / 동구청소년수련관 ☎ 032-777-7942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 032-833-2011

연수청소년문화의집 ☎ 032-831-3660 / 남동청소년문화의집 ☎ 032-453-2645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 032-887-5273 / 계양구청소년수련관

☎ 032-205-7646 / 서구청소년수련관 ☎ 070-8177-3671 / 백령종합사회복지관 ☎ 032-836-6009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032-500-2240

아버지와 나의 인천 사랑



생전 이훈익 향토사가 모습. 김보섭 작가의 작품이다.

아버님은 4년제 보통학교만 나와 인천시 공무원을 지내고 노년에 인천 향토사 연구의 길을 열었다. 신현정 변호사님과 이영호 박사님이 동창이셨다. 1971년 내가 베트남전에서 살아 돌아와 쓰러져에 있는 병원(이이비인후과)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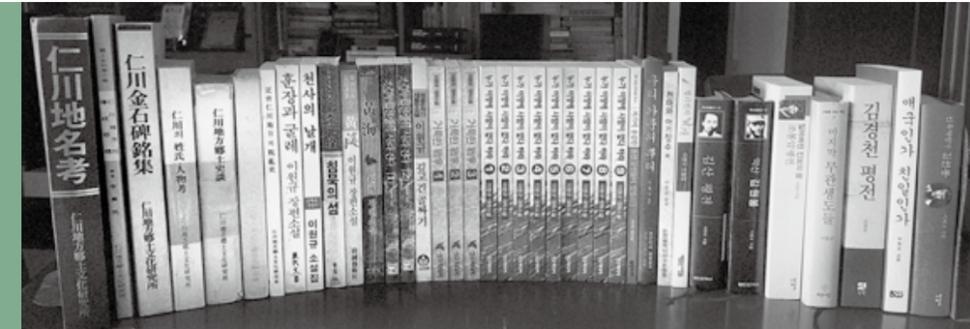
“자네 아버님이 늘 1등 하셨네.”

1930년대 어느 때 서곶면사무소에 업무가 많아 일손이 딸리자 일본인 면장은 통신강의록으로 독학 하던 내 아버님을 데려다 일을 시켰다. 흡족했는지 1년짜리 공무원 양성소에 보냈다. 아버님은 거기를 졸업하고 정식 군청 직원이 되셨고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임당하실 때는 인천시청 직할 서곶출장소 소장이었다.

이 무렵 할아버지가 명하셨다. ‘인천에 합해져 부평 역사가 사라져 간다. <부평사>를 써라.’



이훈익 선생의 인천 향토사 저술들과 이원규 작가의 소설과 평전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이원규 소설가.

글 이원규

인천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모교인 동국대학교에서 오래 강의했으며 지금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아버님(이훈익李薰益, 1916~2002)과 나는 조상 대대로 300년을 인천에서 살았다. 속속들이 인천인이고 인천 사랑은 숙명과도 같다.

우리 마을은 서구 연희동이다. 동쪽은 계양산, 서쪽은 바다였다. 바다는 매립되어 청라국제도시로 바뀌었다. 구한말에 설치했던 연희진 자리에 아버님이 일하시는 서곶출장소가, 그 앞에 경찰지서, 가까운 곳에 내 모교인 서곶국민학교가 있었다. 마을에는 당제를 올리는 당나무가 있었고 내리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연희교회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난한 선비로서 부평향교의 전교典校를 지내셨다. 징맹이고개[경명현]를 나귀 타고 넘어가 향교에 가셨고 아버님은 그 고개를 걸어서 넘어 4년제 부평보통학교에 다니셨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아버님 아호는 계양산 서쪽을 뜻하는 서계당西桂堂, 아버님이 내려주신 내 아호는 징맹이고개 서쪽이라는 서현西峴이다.

인천원에농협에서 정년퇴직하신 1970년대 중반 아버님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다. 4년제 보통학교 학력으로 왕조실록을 읽고 국립도서관을 다니셨다. 놀랍고 대단한 일이다.

나는 삼 형제 중 아버지를 가장 닮았다. 어린 시절 글짓기 잘한다고 할아버지 앞에 불려가 먹을 같았는데 결국 소설쟁이가 되었다.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갈 때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갔다. 아버지 서재에 나란히 앉아 글을 쓰던 일은 가장 행복한 추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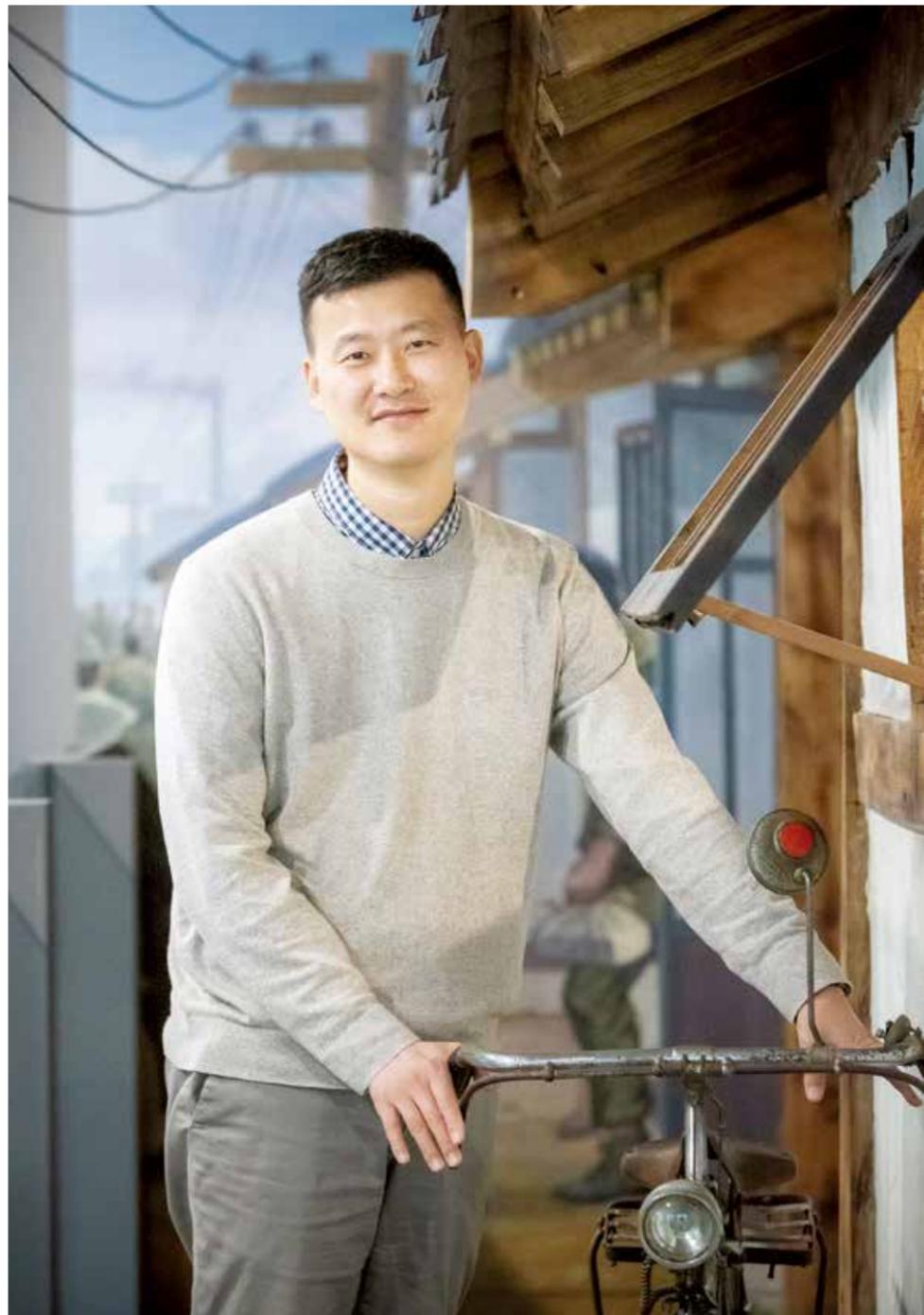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근대 이전 인천을 쓰마. 너는 근현대 인천을 소설로 써라.”

아버님은 인천 향토사 저술 8권을 남기고 떠나셨고 2009년 경인일보사가 발간한 <인천 인물 100인>, 그리고 2013년에 인천시가 발간한 <인물로 보는 인천사>에 수록되었다.

나는 작년 가을 출간한 <민족혁명가 김원봉>까지 30여 권의 책을 썼다. 남들은 부전자전이라 하는데 아버님의 성취에 절반도 못 따라갔다. 아버님처럼 인천을 사랑하지만 인천 배경 소설은 중단편 소설 10편, 장편 소설 1권이다. 독립전쟁사에서 잊힌 인물들 평전을 여러 권 썼는데 이제 남은 생애 소설 본령으로 돌아와 인천 근현대사를 장편 소설에 담고 싶다.

이제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연희동. 지금 나는 바다가 사라진 아쉬움 때문에 소래 포구에 와서 살지만 그곳을 내 몸의 일부처럼 사랑한다. 그곳 선산에 있던 아버님 무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신축 때문에 수용당해 경기도 연천군으로 옮겼다. 나도 아버님처럼 80세까지 집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5~6년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인천 이야기를 더 소설로 쓰고 아버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인천을 아는 만큼,
인천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시민 시장
손민환

2,000여 년 전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미추홀을 찾아온 그들과
지금 인천 땅에 밭 딛고 살아가는 나는 무슨 인연일까.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누가 말했던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역사가 그렇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역사다. 인천의 시조인 비류와 온조는 실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2,000여 년 전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미추홀을 찾아온 그들과 지금 인천 땅에 밭 딛고 살아가는 나는 무슨 인연일까. 강화도에 참성단을 쌓은 단군은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 속의 존재인가.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진학한 건 역사 과목에 흥미가 많던 저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살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손민환(39)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청소년기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시절, 역사 시간은 상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수만 년 전을 오가는 시간이었다. 사랑과 투쟁,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한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보다 재밌게 다가왔다. 사학과 졸업 뒤 인천시립박물관 연구원을 거쳐 고려 시대 신분제도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부평역사박물관에 정착한 때는 2017년 2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역사연구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다고 생각한 때는 단 한번도 없었다.

“연구자들은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새롭게 깨닫는 진리의 부피가 더 큰 사람들이죠.” 최근 펴낸 학술연구서 <화랑농장> 발간을 위해 공들인 시간만 2년. 1주일에 몇 차례씩 부평3동 화랑농장 골목을 샅샅이 누비고 다녔지만 힘들기는커녕 엔도르핀양이 점점 많아진 것은 그가 일을 즐겼기 때문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진리였다.

“화랑농장은 6·25전쟁 뒤 갈 곳 없는 상이군인들이 가족을 기르며 살아가던 곳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상이군인 중에서도 이북 출신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화랑농장 연구 과정에서 1953년 농장을 창설한 김국환 농장장의 유족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부인과 자녀들을 만났는데 오래된 사진첩과 스크랩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이군인이 쓰던 주택 한 채도 발견했지요.”

유물, 유적은 과거를 증명할 수 있고 미궁 속에 있던 과거의 진실과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매개체다. 유물, 유적이 발굴될 때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열우물마을(십정동), 부평 신촌, 부평 삼릉출사택 등 부평역사박물관은 지금 부평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며 부평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중이다. 손 학예연구사의 다음 연구 주제는 ‘부평시장’이다. “부평강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등 여러 시장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부평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부평시장이 과연 부평 지역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지요.”

80일 전, 첫딸 유하를 얻으면서 ‘딸 바보’가 된 그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는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다.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아직 못 썼어요. 틈틈이 써서 부평과 인천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0 February

02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2020 인천퀼트전 Mola展

2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풍경을 보다 '마음의 풍경'전

2월 7일(금)~13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드로잉숨전

2월 14일(금)~20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Epic for persona

2월 18일(화)~27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제7회 정기회원전

2월 18일(화)~27일(목)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제9회 한국수석회 인천지역회 회원전

2월 21일(금)~24일(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여송 서복레화백 초청 특별전

2월 21일(금)~2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2020년 현대사진기획전 '경계에 서다'

2월 21일(금)~27일(목)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공연·전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공연

01 토

AKMU '항해' TOUR IN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1일 오후 7시
2월 2일 오후 5시
VIP석 12만1,000원, R석 11만원
☎ 02-744-0258

02 일

클래식 색소폰의 세계2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05 수

아동극 '아빠의 마술모자'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일반 1만원, 단체 6,000원
☎ 032-884-4231

06 목

2020 코베 베이비 페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2홀
2월 6일~9일
오전 10시~오후 6시
1만원(사전 등록 시 무료)
☎ 02-6121-6458



08 토

엄마 까투리 '먹구렁이와 생일 파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2월 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 02-744-0258

바다 탐험대 옥토포트 '불가사리의 모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월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2월 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5만원
☎ 1800-5932

09 일

레젤트리오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14 금

제20회 연수문화원

알펜레제 어린이요들단 정기 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32-821-6229

15 토

폴 포츠 내한 공연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7시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A석 4만4,000원
☎ 032-460-0560

부평신포니에타 제22회 정기연주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4시
전석 초대
☎ 032-522-9888

16 일

양다일X권진아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7만7,000원
☎ 1544-6986



실내악 시리즈 9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2 토

2020 남진 라이브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6시
VIP석 11만원, R석 9만9,000원,
S석 7만7,000원
☎ 1544-3901

설레임! 서쪽에서 피는 꽃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무료
☎ 010-9035-7482

퍼플 카우 뮤직 페스티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오전 10시~오후 5시
8만8,000원
☎ 1544-3901



아이스크림 왕국의 뽀로로와 친구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2월 22일~23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5만5,000원, S석 4만4,000원
☎ 032-522-9888

23 일

제10회 인천대건OB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전석 5,000원
☎ 010-2254-6874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오후 4시 30분
전석 1만원
☎ 032-289-4275

26 수

솔리스츠의

아카펠라 콘서트 '화음'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1시
전석 3,000원
☎ 032-460-0560



27 목

2월 유모차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챔버홀
오후 3시
어른 5,000원, 아이 1,000원
☎ 032-289-4275

29 토

어린이 뮤지컬

'프린세스&다이너'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후 2시·4시
전석 3만원
☎ 032-460-0560



보이스퀸 콘서트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1홀
오후 2시·6시
VIP석 9만9,000원,
R석 8만8,000원,
S석 7만7,000원
☎ 02-6121-6458

1월 굿모닝 컬처 데이 당첨자 안내

2020년, 인천을 위한 '다섯 글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인천시립교향악단 '2020년 신년 콘서트' 티켓 2매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달 리 자 인 천

허완섭(서구 봉오재3로)

행 복 인 천 시

이기훈(연수구 송도과학로)

한 번 해 보 자

이현정(부평구 안남로)

눈 부 신 한 해

박혜선(부평구 동수천로)

가 슴 뽀 는 삶

조선정(연수구 해돋이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관 공연이 없는 관계로, 2월 '굿모닝 컬처 데이' 이벤트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월, 보다 감동적이고 유익한 공연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3월 예정 공연 : 뮤지컬 '팬레터'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수학, 과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개학’이다. 한 달 남았다. 쏠살같은 시간에 대한 야속함은 접어두고 대범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자.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 되는, 보고 배우는 겨울방학. 남은 겨울이 즐거워진다.

* * * * *

‘보고’ ‘배우는’ 겨울방학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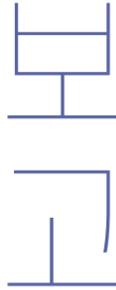
* 해리와 마법 기사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신기한 경험을 선사할 체험형 뮤지컬이다. 입장부터 남다르다. 관객에게는 마술 모자와 망토, 마법 도구가 담긴 가방이 주어진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연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마법사로 분한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이 눈에 선하다. 무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마법 학교 콘셉트로 꾸며졌다. 최고의 마법사를 꿈꾸는 해리를 이용해 마법 학교를 빼앗으려는 못된 마법사들의 음모를 담은 스토리가 신기한 마술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펼쳐진다. 공연 중간중간 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몰랐던 마술의 비밀이 공개되기도 한다.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마법 기사단 수료증’은 특별한 선물. 마술과 뮤지컬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매직컬’ 세상으로 초대한다.

* 무지개 물고기

요즘 공연계의 트렌드도 ‘참여’다. ‘국내 최초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이란 낯선 이름 뒤편 관객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만들어가는 공연이란 속뜻이 담겨 있다. 무대 위에서는 바닷속 판타지로 가득한 다이내믹한 쇼가 펼쳐진다. 거대한 물방울 벌룬과 고래 아저씨 등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15분간의 퍼포먼스는 압권.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권장 도서를 원작으로 하는 이야기 속에는 나눔과 화합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

아이와 함께



해리와 마법 기사단
기간 2월 16일까지(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인천어린이과학관 공연장
시간 60분
문의 032-218-4669

무지개 물고기
기간 2월 15일~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장소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60분
문의 1566-7754



오은영



이석원

아이를 위해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기간 2월 11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계양문화회관
시간 약 180분
문의 010-9300-6492

엄마는 절대 모르는 ‘아들 성교육’
기간 2월 7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송도컨벤시아 1층 116호
시간 약 180분
문의 010-4829-6413

* 못 참는 아이, 육하는 부모

화내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열린다. 인기 TV 방송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대표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전하는 감성 조절 육아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거짓말, 버릇, 떼, 고집, 과잉 행동, 음식 거부 등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도 때론 1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 행동에 대한 실전 적용 솔루션이 오은영 박사 특유의 정곡법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한편으론 그동안의 육아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잘 알지 못해 오해했거나 지나쳤을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이 아이를 변화시킨다.

* 엄마는 절대 모르는 ‘아들 성교육’

여자로 태어난 엄마는 절대 모르는 아들 성교육. 교육 제목에 발끈할 엄마들도 있겠지만 일단 배워보자. 엄마와 아들을 이어주는 성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이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여성만 참여가 가능하다.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3,000회 이상의 성교육을 통해 쌓은 노하우가 쏟아진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이든 물어보는 Q&A 시간도 알차다. 강연은 아들 성교육 전문가 이석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사가 맡는다. 성교육과 양성 평등,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인권, 인구 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꼭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여지는 아들 성교육. 특별한 강연으로 우리 아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자.



IMAGE NEWS

‘자원 순환’ 일류 도시 인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공동체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한
#자원 순환 선진화 정책 추진

01

미리 준비하는 ‘자립 순환’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와 별개
#자체 매립지 조성 #친환경 매립 정책 준비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02

‘악순환’은 끊어내고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리 체계 탄탄하게 개선

03

함께 시작하는 ‘선순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
#공정한 정책 추진 #시민대토론회, 인천시공론화위원회
통한 #시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 노력

04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인천 뉴스

- +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S-BRT) 시범사업에 우리 시의 ‘인하대·서인천, 계양·대장’ 구간이 선정됐다.
- + 창업 이론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점포 운영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해보는 체험점포 ‘꿈이룸’이 문을 열었다.
- + 애경그룹이 송도국제도시에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가칭)’을 설립한다.
- +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꾸면 한 대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한다.
- + 우리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 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 부평 미군 기지였던 캠프 마켓 주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3-1공구가 개통됐다.

NEWS BRIEF

‘도로 위 지하철’ S-BRT 달린다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범사업에 우리 시의 ‘인하대·서인천, 계양·대장’ 구간이 선정됐다.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 차로를 이용하고, 우선 신호 체계를 적용받는다. 또 교차로 구간은 전용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입체 통과 수단을 만들어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구간에 설치되는 인하대·서인천(9.4km) S-BRT는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연결돼 인하대에서 서울 가양을 연결한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서인천~신월 나들목(IC), 3단계 송도~인하대 구간과 연결되면 ‘송도~인하대~여의도’를 30분 안에 잇는 광역 BRT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천 계양지구, 김포공항을 잇는 계양대장(17.3km) S-BRT는 총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된다. 김포공항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고, 출퇴근 시간 계양지구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82

인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우리 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홈페이지는 인천의 90개 공공기관 소식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포털 기능을 마련하고 시민 소통 플랫폼을 대폭 강화했다. 또 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빅데이터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됐으며, 정보 공개 포털을 고도화해 시민이 찾기 전에 600여 개 항목의 사전 정보를 공개했다. 특히, 중장기 계획과 시정 지표 등 정책 추진 과정을 행정 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032-440-2322

캠프마켓 관동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통



부평 미군 기지였던 캠프마켓 주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3-1 공구가 개통됐다. 총 길이 1,280m 가운데 이번에 620m 6차선 도로가 개통됐으며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인근 산곡2동과 3동 일대의 통학 환경과 출퇴근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3-2공구(캠프마켓~주안장로교회 사거리)는 캠프마켓 환경정화 사업 등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종합건설본부 032-440-5214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우리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 구역을 말한다. 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시 대기보전과 032-440-3523

애경그룹, 송도에 종합기술원 설립



애경그룹이 송도국제도시에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가칭)’을 설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1일 애경그룹과 종합기술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애경그룹의 종합기술원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내(송도동 204번지) 부지 2만8,722㎡에 연면적 4만3,000㎡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2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애경그룹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송도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초, 원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4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고 설비를 확충해 환경, 보건, 안전 대응 및 시설 관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382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땀 포상금 최대 1억원

우리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전자고지 납부 홈페이지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일 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시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5982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우리 시는 신용보증기금, 인천테크노파크와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 보험료 지원금 10억원을 출연, 기업이 부담할 매출채권 보험료의 80%를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신보는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예비창업자 위한 체험점포 ‘꿈이룸’ 문 열어

창업 이론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점포 운영을 통해 사업 모델을 검증해 보는 체험점포가 문을 열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월 16일 부평구 갈산동 부평테크시티 1층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 개소식을 개최했다. 꿈이룸은 전용 면적 170㎡ 규모로 10개 개별 점포와 회의실, 다용도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예비창업자 19명이 앞으로 4개월간 점포 운영을 체험하면서 전문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 초기 어려움을 해결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7



리듬파워, 필근아 소극장팀 홍보대사로 위촉

인천 출신 힙합그룹 ‘리듬파워’와 송필근 외 4명의 개그맨으로 구성된 ‘필근아 소극장팀’이 인천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특히 리듬파워는 최근 2년간 시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으며, 멤버 3명 모두가 인천 출신이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필근아 소극장팀’은 인천 출신의 리더 송필근을 중심으로 구성된 5인 개그팀으로 지난해 1월 부평 문화의 거리에 인천 최초 코미디 전용관을 개관해 매주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연말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일반 시민을 포함한 11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연예인 등 유명인을 추가로 위촉했다.

시 소통기획담당관 032-440-3044

캠핑 마켓 역사 담긴 건축물 도서, 관리 카드 인수

우리 시는 일본 육군의 무기 공장이었다가 광복 이후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된 캠핑 마켓의 건축물 도서와 관리 카드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 물품은 1단계 반환 지역 22만3,000m² 내 건축물 43채 설계도면 27롤과 이력 카드 74부, 건물 열쇠 3상자이다. 2단계 지역 21만7,000m² 내 건축물 93채와 관련한 자료는 올해 8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대로 국방부에서 넘겨받을 예정이다.

시 부대이전개발과 032-440-4662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제물포역사에 개소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가 12월 30일 제물포역사 1층에 개소했다.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1차적으로 상품을 담는다는 의미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겠다 뜻을 함축하고 있다. ‘더담지’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전시판매장과 교육체험장, 카페 등이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플리마켓을 여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2

‘명품 섬’ 만들기에 시·군·구 힘 합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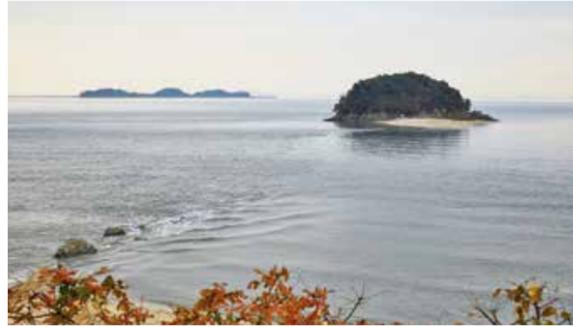


사진 © 문정형

우리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앞바다 섬에 경관 도로를 조성하는 등 명품 섬(島)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풍경이 아름다운 섬’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6개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시군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올해부터 섬마을 지붕 색채 시범사업과 해수욕장 경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도시경관과 032-440-4785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LPG)차 전환 추진

우리 시가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바꾸면 한 대당 5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억5,000만원을 편성, 올해 4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4일까지 인천시 대기보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시 대기보전과 032-440-3553



외국인 투자기업 통합지원센터 7월 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오는 7월 송도국제도시 내 G타워 2층에 380m² 규모로 개소한다. 센터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투자자·동반 가족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등록, 사업자 등록 신고, 관세 상담, 외국인 투자 신고, 투자 종합 상담,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노무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송도국제도시 67개, 영종국제도시 14개, 청라국제도시 6개를 합쳐 모두 87개다.

자유구역청 032-453-7382

100주년 기념 도서관, 검단 2지구에 건립

우리 시는 시립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검단택지개발 2단계 사업지구의 근린공원에 건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 착공될 예정인 기념도서관은 인천시의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급의 대형 도서관으로 지하에는 171만 권의 책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 공동 보존관’이 별도로 조성된다. 시는 인천지역 5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보관할 수 없는 책들을 이곳에 한데 모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서관정책과 032-458-7211

서구, 국내 최초로 LNG 청소차 도입

서구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청소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구가 도입한 청소차는 암울 트럭 1대와 노면청소차 2대다. 서구는 앞서 한국가스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유진초저온·타타대우상용차·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LNG 청소차를 도입했다.

서구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통행하는 쓰레기 운반 차량도 친환경 연료 사용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구청 032-560-4646

알고 보면 쉽다! 궁금한 정책 Q&A

취·창업 재직 청년을 위한 ‘월세 비용 지원’

우리 시는 올해부터 취·창업 재직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1인 가구) 월세 10만원을 지원합니다. 7개월간 모두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 방법 : 월세 선납부, 납부 내용 확인 후 개인별 지원금 지급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올해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 거주자로, 1인 가구, 취·창업 재직 청년
- 나이 : 만 19세~39세
- 대상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Q. 신청 방법과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사업 시행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구비 서류 등은 사업 시행 전 인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4163, 4164

COUNCIL NEWS

2020년 의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도 인천시의원들은 300만 인천 시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인천시의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크고 작은 변화를 알아본다.

회기 131일, 2020년 시민 중심 의정 돌입

인천시의회는 2020년 1월 31일부터 11일간 2020년도 첫 회기에 돌입한다. 인천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듣고, 인천시장으로부터 한 해를 이끌 시정 보고를 청취한다. 그렇게 8회에 걸친, 정례회 2회 67일과 임시회 6회 64일 등 총 131일 운영된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제8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돌입한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인천시의회 새 단장

개원 29년 만에 인천시의회가 새 옷을 입는다. 지난 1991년 개원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옆에 자리한 인천시의회는 약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운영되며 시설이 노후해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본회의장의 오래된 시설을 새로 바꿀 계획이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소통 창구로

인터넷을 통해 인천시의회를 맞이하는 시민 모두가 확 달라진 인천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만나게 된다. 올해 인천시의회 누리집은 ‘소통’이라는 열린 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에 모든 콘텐츠가 사회간접망서비스(SNS)로 공유돼 전국 어디서라도 누구나 손쉽게 인천시의회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 14개, 열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인천시의회’는 제8대 인천시의회의 자랑이다. 37명 인천시의원 모두가 다양한 연구단체 1곳 이상씩은 소속돼 있다. 인천시의원들의 연구활동은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진다. 다문화부터 자치분권, 도시외교, 지역경제, 복지,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활성화

2020년에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가 활발하게 운영된다. 스피치 교육과 모의의회 체험으로 이뤄졌던 청소년 의정교실은 2020년부터 시의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질문 있어요!’ 코너가 신설된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할 학교는 1월부터 3월까지 모집 예정이다. 문의 032-440-6153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3일 시의회 중앙홀에서 의회 의정에 관계된 주요 인사들을 초청, 2020년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은 “올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증진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구동합심(求同合心)으로 주민, 지자체, 국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지난 1월 8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과 출연요율 현실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연비율 1,000분의 0.2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1,000분의 0.8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 공로대상에 우수 의원 3인 선정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유세움 의원, 조선희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인천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인천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적 기구로 인천에는 군·구별로 20여 명씩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에 걸쳐 온라인 투표를 벌여 청소년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쓴 의원 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청소년 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지난 1월호 기사 ‘교통 약자 보행 환경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열어’ 본문 중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바로 잡습니다.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 032-440-6137~8 ④ www.icouncil.go.kr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인천이 그린다 인천을 그린다

작가의 말

청량산 둘레길을 휘돌아 정겨움을 담다

주말이면 화구동 둘러메고 바깥으로 사색을 즐기러 간다. 삭막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인천에는 정겨운 곳이 남아 있다. 동네 청량산 둘레길은 언제나 정겹다. 차가운 계절에도 늘
포근함으로 반긴다. 길을 걷다 곧 다가올 봄을 만났다. 외관은 옛 모습을 살린 채 내부 수리가 한창인 정겨운 기와집을
화폭에 담았다.



청량산 둘레길(수묵담채) 65x45cm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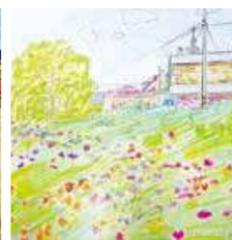
1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장기민 서구 중봉대로



이규희 부평구 부흥로



전지현 서울시 영등포구



한복례 부평구 마장로



안민기 부평구 이규보로

작품을 보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홈페이지 : www.incheon.go.kr/goodmorning → 독자마당 파일 첨부
- 3) 기간 : 2020년 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송준일 작가

우리네 삶이 녹아 있는 다양한 ‘삶의 표정’을 화폭에 담으며 작
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전, 가족전, 그룹전 등 300여 회
의 전시 활동을 펼쳤으며, 화실에서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 활발한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연수구미술협회 등에서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최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폐렴, 호흡 곤란)
- 위험 요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및 체류
- 해외여행 시 주의 사항 : ④ 해외감염병NOW.kr에서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주의 사항 :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및 가까운 보건소와 상담
- 예방 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준수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02 여러분도 예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2020년 민간지원관 선발을 위한 참여 예산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 대상 :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자치, 마을 만들기, 교육 자치, 지역 복지 등 공익 활동 3년 이상 경험자로 신청 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한 자
- 교육 인원 : 35명
- 교육 횟수 및 시간 : 기초 과정(16시간), 심화 과정(20시간)
- 교육 장소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교육실
- 교육비 : 무료
- 신청 기간 : 2월 4일 오후 5시까지
- 문의 :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 032-421-2303

03 평화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세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평화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도시조성사업’을 공모합니다.

- 공모 분야 : 평화 도시 조성 시민 참여 제안 사업, 서해 평화 주민 참여 제안 사업
- 공모 기간 : 2월 21일까지
- 참가 자격 : 인천 소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군구 제외)
- * 군·구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지원 예산 : 총 3억원(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 사업 기간 : 4월(예정)~12월 31일
- 문의 :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032-440-4318

04 신예 작가의 창작 예술 작품을 기다립니다

한국 미술의 새로운 방향 제시와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 있는 신예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를 독려하는 ‘제37회 경인미술대전’이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 : 평면, 입체, 서예, 문인화
- 출품 자격 :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 원서 교부 및 신청 : ④ www.bcfineart.or.kr 또는 ④ www.artbucheon.com
- * 평면·입체 부문 : 3월 10일까지
- * 서예·문인화 부문 : 3월 3일까지
- 출품 및 접수 : ④ www.bcfineart.or.kr 또는 ④ www.artbucheon.com 참조
- 출품료 : 1점당 5만원(2점 출품 시 8만원)
- 문의 : 경인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 032-611-5980

05 당신이 곧 인천의 기술입니다

우수 기능 인력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지역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진행합니다.

- 접수 기간 : 2월 4일까지
- 대회 기간 : 4월 6일~10일
- 참가 자격 : 대회 개최일 현재 3개월 이상 인천시 소재 소속 기관에 속한 자.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자, 국제 대회 또는 전국 대회 입상 사실이 없는 자
- 접수 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
- 원서 접수 : ④ meister.hrdkorea.or.kr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32-820-8611

06 부평에 대한 기록을 공유해 주세요

2021년 발간을 목표로 편찬하고 있는 세 번째 <부평사>에 사진 기록집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옛 부평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기증을 기다립니다.

- 기증 대상 : 부평 지역 관련 사진, 앨범, 동영상 등
- 참여 대상 : 개인 또는 기관
- 수집 기간 : 12월 31일까지
- 문의 : 부평문화원 부평사편찬실 ☎ 070-8875-3452

07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꿈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자격
- * 정규 과정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대표자
- * 추가 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7, 8기), 졸업 예정(9기) 창업 기업 대표자
- 지원 내용
- * 정부지원금, 창업 인프라 제공, 코칭·교육 실시, 기술 지원, 판로와 해외 진출 지원 등
- 신청 기간 : 2월 6일 오후 5시까지
- 문의 : 인천청년창업사관학교 ☎ 032-858-7859, 7860

08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4월에 개최될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활동할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 50개 직종
- 모집 인원 : 직종별 2명(일부 직종 3~4명)
- 지원서 제출 : 2월 1일~2월 14일 오후 6시까지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 032-820-8611
- ④ www.incheon.go.kr ‘새소식’ 참조

09 시민의 정원을 열어드립니다

2020년도 인천팸틀 사용일 확정 및 수요 조사 등을 위한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월 9일까지
- 신청 방법 : ④ 032-440-8640 또는 ④ chicyoung2@korea.kr
- * 신청서 서식 ④ www.incheon.go.kr/IC021503
- 문의 : 시 총무과 032-440-2658



10 친환경 사업장, 함께 만들어요

‘스마트 에너지 팩토리 용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보다 깨끗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신청 기간 : 10월 30일까지
가입 대상 : 관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자가 사용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미 완공된 태양광 발전 시설 제외)
시공 자격 : 인천시 소재 사무실을 둔 전기공사사업자
용자 규모 : 15억원(에너지 사업 기금)
신청 양식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032-440-4354

11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신청하세요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교육 기간 : 1월~11월
교육 대상 : 폭력 예방 교육 비의무 대상인 일반 성인 20명 이상
* 교육 의무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교육시간 : 1~2시간
교육비 : 무료
문의 :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부설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 032-861-2706

12 우리 집 가구, 내 손으로 만들어요

인천대공원에서 성인 목공 특강으로 ‘우리 집 가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집 기간 : 2월 11일~18일
모집 인원 : 총 6팀(1팀 1가족)
체험 품목 : 체험자가 희망하는 목재 가구
신청 방법 : ㉠ 032-440-5884 * 신청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정
추첨 일정 : 2월 22일 오전 10시~11시,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기간 : 3월 7일~5월 9일 매주 토요일(총 10회 운영)
체험료 : 1인 1회 2,000원(재료비 별도)
문의 : 인천대공원사업소 ㉠ 032-440-5884

13 우리 동네 도서관 문화 행사



[미추홀도서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
일시 : 2월 6일, 13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성인 40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7

멘토 플러스 어린이 로스쿨
일시 : 2월 17일~19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예비 초등학교 5~6학년 20명
문의 : 미추홀도서관 ㉠ 032-440-6667

[청라호수도서관]
도서관에 간 책 꾸러기
일시 : 2월 6일~13일(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대상 : 예비 초등학교 1~2학년 12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126

정월대보름을 맞아요
일시 : 2월 8일 오후 2시~4시
대상 : 유아 20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126

드론 비행사 나야나
일시 : 2월 17일~20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 예비 초등학교 3~6학년 20명
문의 : 청라호수도서관 ㉠ 032-563-8126

[청라국제도서관]
사계절 절기 이야기
일시 : 2월 15일 오후 2시~4시
대상 : 성인 20명
문의 : 청라국제도서관 ㉠ 032-562-1672

2020학년도 2월 시민을 위한 인천 정책 문제지

<노인 일자리 영역>

▼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2020년, 인천이 일한다. 우리 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8,371개 늘어난 4만1,09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1,458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했다. 올해 어르신들에게는 공익 활동 3만3,700개, 시장형 사업 3,990개, 민간 업체 취업 알선형 사업 700개, 사회 서비스형 사업 2,700개 등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노인 집단 특성 다변화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접목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 돌봄 사업’ 120명, 인천도시공사와 함께하는 ‘같이가유 노인 일자리 사업’ 50명,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우리 아이 시니어 선생님’ 1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니어 장기요양보험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76명 등이 있다. 우리 시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급여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 매칭 사업비 외에 시비와 구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인천 특화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200명에게 월 40만원의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지식과 지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다. 또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노인 복지 정책 추진에도 힘을 쏟는다.

- 1. 우리 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총 4만1,090개로 대폭 확충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얼마나 늘어난 수치일까요?
㉠ 8,731개 ㉡ 8,371개 ㉢ 8,173개
㉣ 8,317개 ㉤ 8,137개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는 노인 집단 특성 다변화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접목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 초등학교 아동 돌봄 사업’ 120명 등이 있다.

- 3.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Blank box for answer]

▶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인천 능력 평가’에 출제된 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goodmorningic@naver.com(2월 18일까지)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1월 출제된 지역 경제 활성화 영역 ‘인천e음카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인천시가 되겠습니다.

REVIEW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캐시백 포인트를 교통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쿠폰 등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홍혁기(연수구 원인재로)

인천e음카드를 사용 후 대형 마트나 유명 체인점에서 작은 가게 위주로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올해 인천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박현경(중구 은하수로)

신용 카드처럼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사용 시 사용 금액별, 캐시백 적용 요율별로 알림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생기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안영미(남동구 소래역남로)

지난해 인천e음카드 사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변동되는 사항과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등으로 작은 혼란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선으로 나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희경(부평구 원적로)

골목 상권 보호와 역외 소비 감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소비 만족도도 크며,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카드의 편리함도 좋습니다.

김지민(연수구 송도문화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계양구가 복구이던 1980년대 중반, 서울 갈 때는 삼화고속을 애용했다. 계양구 효성동 집에서 전철을 타러 부평까지 나가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역까지 시간이 걸렸고, 전철 안에선 앉기는커녕 수북이 올라온 콩나물시루 속 털 자란 콩나물 신세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이에 반해 삼화고속은 집에서 가까운 부평공단에서 탈 수 있는데다 소파처럼 편하게 앉아서 오갈 수 있었다. 어찌다 예쁜 여자라도 옆자리에 앉으면 가슴이 뛰었고, 활주처럼 쭉 뻗은 ‘경인고속도로’를 중후하게 질주하는 버스의 속도감도 괜찮았다. 서울에서 밤늦게 돌아올 때는 애를 먹기도 했다. 과음으로 차멀미를 하거나 화장실이 급해도 도착할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참아야 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던가. 경인고속도로가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인천지하철, 인천공항철도 개통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삼화고속은 추억 속의 버스로만 남게 되었다.

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국방도로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1941년 일제는 조병창이 있던 부평과 인천항 간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방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3년 안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의 남성이 징용되며 공사가 지체됐고, 광복을 맞으면서 도로 건설은 중단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효성동, 작전동 일대엔 공사 흔적인 아스팔트 길이 남아 있었는데 그 옆으로 몇 개의 송유관이 지나



갔다. 어느 날 누군가 송유관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남자들은 똥지게에, 여인들은 항아리에 기름을 받아냈고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어갔다. 국방도로를 확장해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전까지 도로변 송유관은 생계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 최초’란 수식어를 달며 탄생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인천을 출발하면 18분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 이 전까지 국도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였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거나 부평, 주안 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은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부지런히 서울로 올라갔다. 인천이란 심장은 경인고속도로란 대동맥을 통해 서울로 건강한 피를 공급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인천 동서 지역 간 단절을 담보로 한 결과였다. 용현·석남·가좌동 등 인천의 주요 지역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반으로 갈라졌고 주변은 슬럼·공동화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가 뿌연게 인천을 뒤덮었다.

그런 경인고속도로가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말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뉴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승인하면서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됐던 동서 지역은 반세기 만에 부동켜안게 되었다. 뉴딜 사업은 가정동~석남역 일원에서 시작한다. 향후 인천대로 주변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뉘 권역별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을 진행한다. 경인고속도로가 갈라놓은 동네와 동네가 이어지고 방음벽과 옹벽이 있던 자리엔 맑은 개천이 흐르며, 푸른 공원과 행복한 문화 시설이 들어서면서 읍씨년스럽던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덜 것이다. 인천은 지금 새로운 도시 역사를 써 내려가는 중이다.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추억을 걸어드립니다

인 천 사 진 관



아버지는 40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진정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지난해 은퇴 후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엔 가족은 없고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자랑스럽기만 했던 그 길이, 가족에겐 때론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 건사하느라 고생한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을 위해, 오롯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매일 매일 눈에 담고 가슴에 담으며 그 다짐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류인복 독자님 가족

이달의 사진은 ‘예작스튜디오’에서 찍어주셨습니다.

홍익삼 사진사는 40년 가까이 인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일을 통해 값진 무언가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 한 해도 거르는 일 없이 주변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위치 부평구 안남로 62 문의 032-517-3333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개와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내주세요.
신청 <굿모닝인천> 홈페이지(www.incheon.go.kr/goodmorning) 독자마당(성명/연락처/주소 필수)

